

 금융위원회	보 도 반 박	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1.7.29.(목)	

책 임 자	금융위 FIU 기획협력팀장 전은주 (02-2100-1730)	담 당 자	고선영 사무관 (02-2100-1741)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 목 :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
9.24일까지 예외없이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.
(문화일보 7.29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)

1. 기사내용

- 문화일보는 7.29일 「“9월 ‘FIU신고’ 못해도... ISMS 인증엔 가상화폐간 거래는 허용”」 제하 기사에서
 - 금융당국은 정보보호관리체계(ISMS)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에 한해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비트코인 마켓 등으로 가상화폐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언급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개정 특정금융정보법(“21.3.25일 시행)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**9.24일까지 예외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합니다.**
 - 이 때, 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 인증은 특정금융정보법상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사항이며,
 -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경우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개설하지 않아도 됩니다.